

# “헌정질서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 진전... 선도국가 시대 열 것”

## 文 대통령, 임인년 신년사

“위기극복 정상화 원년 만들겠다  
고용의 양적·질적 회복 위해서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 더욱 강화”

‘검은 호랑이의 해’로 불리는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3일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우리 정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진전시켰다”며 취임 이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분야별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누구도 우리 국민이 이룬 국가적 성취를 부정하거나 폄하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까지 이룬 국가적 성취가 다음 정부에서 더 큰 도약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2022년 새해, 위기를 완전히 극복해 정상화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 세계에서 앞서가는 선도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2022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

국가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삶의 완전한 회복 ▲선도국가 시대 준비 ▲선진국 수준으로 삶의 질 개선 ▲한반도 평화 구상 실현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3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 삶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방역을 튼튼히 하며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이 모든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의 양적, 질적 회복을 위해

민간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하겠다. 격차를 줄여가는 포용적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고강도 방역조치 연장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는 데 대해 “최대한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선도국가 도약 구상과 관련 문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기술 경쟁 선제 대응 ▲국가전략산업 및 첨단

기술 육성 ▲한국판 뉴딜로 대한민국 대전환 속도 향상 ▲산업별 K-전략 가속화 ▲탄소중립 시대 주도적 개척 및 수소 선도국가 전략 추진 ▲외교 다변화 및 지평 확대 ▲소프트 파워에서 세계 선도 등을 약속했다.

국민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문 대통령은 ▲촉진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고용형태·사회변화에 따른 고용안전망 확충 ▲실수요자 주택 공급 속도 향상 ▲초광역 협력 추진을 통한 수도권·지방 상생 균형발전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추진한 ‘한반도 평화’ 구상과 관련 “아직 미완의 상태인 평화를 지속 가능한 평화로 제도화하는 노력을 임기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는 말도 했다.

올해가 남북 정부 간 최초 공식 합의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대화 기본정신이 천명된 ‘7·4 남북 공동선언’ 50주년이라는 점에 대해 언급한 문 대통령은 “지금은 남과 북의 의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며 “다시 대화하고 협력한다면 국제사회도 호응할 것”이

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임기 동안 분야별 성과도 평가했다. 그동안 성과가 있었던 만큼, 남은 임기 동안 국정 과제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하기 위해 나온 메시지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 제도화 ▲투명성·개방성 확대 사회 및 언론자유·인권 신장 ▲국방력 강화를 통한 종합 군사력 세계 6위 능력 달성 ▲한반도 상황 안정적 관리 ▲K-방역 및 K-문화 콘텐츠 성장 ▲소득불평등·양극화 문제 개선 (5분위 배율,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등 대표적인 3대 분배 지표 개선) 등을 내세웠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여 국민의 선택을 받는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은 통합의 선거가 되었으면 한다”며 “국민께서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해 주시고 좋은 정치를 이끌어 주길 바란다”는 당부도 남겼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앞줄 오른쪽)이 네덜란드 ASML을 방문해 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삼성전자

## 이재용, 내달 초 해외 출장 ‘뉴 삼성’ 구상

2월3일 법정 휴정에 2주간 여유  
유럽·중국 등 유력 출장지 꼽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설 연휴에 글로벌 경영 행보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3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설 연휴 해외 출장을 떠날 예정이다.

당초 지난달 법정 휴가 기간에 출장을 떠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대기업 총수와 최고경영자를 초청하면서 일정을 미룬 것으로 알

려졌다.

이 부회장은 매주 목요일 삼성물산 합병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지만, 설 연휴 직후인 2월 3일에는 법정 휴정으로 2주 가량 여유가 있다.

유력한 출장지로는 유럽이 꼽힌다. 네덜란드 ASML에서 극자외선(EUV) 장비를 확보하는 것이 반도체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 아울러 유럽이 반도체에 대규모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데다가, 유럽 소재 전장 반도체 기업들이 인수대상자로 떠오르면서 ‘대규모 M&A’에 대한 기대감도 적지 않다.

앞서 이 부회장은 2020년에도 네덜란드를 방문해 EUV 장비 확보에 힘을 더한 바 있다. 최근 인텔 등 경쟁사들이 EUV 장비 확보에 열을 올리며 공급 부족

이 심각한 만큼, 다시 한번 관계자들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중국 출장 가능성도 높다. 최근 중국 시장 점유율이 대폭 떨어지면서 ‘중국 사업혁신팀’까지 신설한 상황이다. 현지 시장을 직접 돌아보고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

시안 제2공장도 완공 단계에 접어들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시안 공장 가동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공급망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 부회장이 직접 방문해야 할 필요성도 높아졌다. 이 부회장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2020년 5월이 마지막이다.

/김재용 기자 juk@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온·오프라인 맞춤형 개인쇼핑몰 창업**  
**창업비용 99만원**  
**나만의 맞춤형 개인 쇼핑몰 제공 평생 수익 창출**  
**200여개 흥삼제품 +3만여개 인기상품 +자체상품 등록 판매가능**  
**25년 역사 브레인 TV 방송국소유 핫터그룹**  
**대한흥삼주식회사/㈜핫터라이프 T.010-4480-0045**

## 尹 “글로벌 유동성 축소에도 끄떡 없어야”

» 1면 ‘李-尹, 코리아디스카운트’서 계속

아울러 자본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다수의 소액투자자가 대주주나 시장의 강력한 힘에 피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내다봤으나 선진 자본시장으로의 성장을 위해 ‘반기업 정서 혁파’ 등 선결과제를 제시하며 이 후보와 차이를 뒀다.

윤 후보는 “글로벌 유동성 공급 축소 충격에도 끄떡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자본시장 외환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에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다수 포진해 있으나, 최근 포퓰리즘 득세 조짐과 자유로운 기업 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규제 움직임 등 반기업 정서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선진 자본시장 구축을 위해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겪는 외환거래 불편, 투자자 등록 의무화, 공모도 활용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장 저평가의 주요 원인인 기업 지배 구조 불투명성, 회계 처리의 낮은 신뢰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자본시장에 투자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세제 혜택을 정비하고 기업 간 인수 합병을 활성화하고 그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권리가 등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